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1장. 이상한 집에 사는 꽃 아주머니

어휘력을 키워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단어를 의성어 또는 의태어라고 합니다.
글을 쓸 때 의성어나 의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글의 내용이 훨씬 풍부해 집니다.
책 본문에 나오는 의성어 또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글쓰기를 해 봅시다.

들쑥날쑥 :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여 가지런하지 않은 모양

스멀스멀 : 살갗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근질한 느낌

엉거주춤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모양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2장 마티스의 붉은 방-색깔로 보는 세상

생각을 키워요+빛이 만드는 보석

'보다'라는 뜻을 지닌 한자어 시(視), 견(見), 관(觀)은 서로 조금씩 뜻이 다르다고 합니다.

시(視) : 객관적인 대상이 눈 앞에 보인다.

견(見) : 나의 주관적인 눈을 통해 적극적으로 본다.

관(觀) :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가치관

송이가 엄마에게 선물로 받은 '보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 봅시다.

"빨강, 노랑, 주황 등 가지가지 색으로 물든 낙엽" - (視)

"햇살에 반짝이는 단풍잎은 정말 보석 같던걸." - (見)

"나뭇잎들이 루비, 호박, 자수정 같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무척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 (觀)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2장 마티스의 붉은 방-색깔로 보는 세상

명화 감상-앙리 마티스

"빨강 바탕은 태양이 떠오르며 신선한 기운을 뿜어내는 것 같고, 노랑은 따뜻한 기운이 사르르 퍼지는 것 같고, 파랑은 산뜻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식탁이랑 방 색깔이 진짜 이런 색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본문 26쪽)

본문 24쪽과 27쪽에 나온 마티스의 작품을 보고 그림에서 느껴지는 색의 느낌을 써 봅시다.

붉은 조화

붉은 화실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2장 마티스의 붉은 방-색깔로 보는 세상

어휘력을 키워요

- ①미간을 찌푸리며 작은 글씨가 촘촘히 박힌 원고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 "다 같은 빨강색 같지만 사실 색이 똑같은 사과는 없단다. 비슷하기만 할 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 빨강에도 여러가지 ②색조가 있거든."
- 마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③해거름 참입니다.
- 송이는 ④짐짓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밑줄 친 각 낱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맞은 뜻과 연결해 봅시다.

미간	•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색조	•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해거름	• 색깔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
짐짓	• 두 눈썹의 사이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3장 몬드리안의 주황색 방-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세상

구상화와 추상화

뒤러의 그림 <기도하는 손> 처럼 눈에 보이는 사물과 닮게 그린 그림을 구상화라고 하고,
몬드리안의 그림 <구상 10 -흑과 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린 그림은
추상화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추상화의 느낌을 글로 표현해 봅시다.

1. 눈을 감고 들리는 소리의 다양한 색깔과 모양

2.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느낌대로 그리기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3장 몬드리안의 주황색 방-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세상

마음을 표현해요

송이는 수학 시험을 망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진장 길게 느껴질 만큼 속상했는데 꽃 아주머니 집에서 매운 떡볶이를 먹고 꽃 아주머니는 수학 시험에서 0점을 받았었다는 이야기에 같이 웃으며 기분을 풀었습니다.

우리도 속상한 일을 겪은 경험과 느꼈던 감정을 글로 써 볼까요?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4장 피카소의 노란색 방 – 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

작가탐구-다양한 변신을 시도한 화가

피카소는 다양한 변신을 시도한 화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에게 데생을 배워 사실적인 그림도 아주 잘 그렸지만 때로는 사실 그대로 그리는 그림 대신 과감하게 사람들이 한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본문 60~62페이지까지 읽고 작가의 작품 제목을 시대별로 적어봅시다.

청색시대

장미시대

흑색시대

입체파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4장 피카소의 노란색 방 – 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

문장 표현력을 키워요

"긴 탁자위에는 둥글둥글한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접시에는 제각각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꼭 도서관에서 본 아이들 그림 같았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사람 얼굴도 있고, 새처럼 보이는 알쏭달쏭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본문 59쪽)

아래의 모양과 기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글쓰기를 해 봅시다.

선득선득 :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자꾸 드는 모양

스산하다 : 날씨가 흐리고 으스스하다.

알쏭달쏭하다 : 조금 알 것 같다, 얼른 알 수가 없다.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4장 피카소의 노란색 방 – 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

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은 망설임 없이 용감하게 그림을 그린단다. 잘 그려야겠다는 욕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눈에 비친 세상을 느끼는 대로 그리지. 아이들에게 그림은 재미있는 놀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하게 순수한 작품이 나오는 거지.
피카소는 아흔 네 살까지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더욱 단순하고 순박한 그림을 그렸어. 마치 아이들 그림처럼 말이야. 피카소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
'모든 아이는 예술가이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데 80년이나 걸렸다!'"(본문59~63쪽)

꽃 아주머니는 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피카소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아이의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5장 루소의 초록색 방 – 현실과 환상사이로 보는 세상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이야기

"루소 그림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서 살짝 벗어나게 만들어. 그렇다고 완전히 환상 속 세상도 아닌 것 같고…. 현실과 환상 사이에 있을 법한 낯선 풍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 (본문 77쪽)

루소의 <뱀을 부르는 주술사>나 <잠자는 집시>를 보고 그림 속 이야기를 상상하여 글로 표현해 봅시다.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5장 루소의 초록색 방 – 현실과 환상사이로 보는 세상

작가탐구-초현실주의 회화

루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프랑스 화가입니다. 평일에는 세금을 걷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주말이 되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루소는 누구에게도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 경험하지 않은 상상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루소가 처음으로 작품을 발표하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루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상상해 봅시다.

루소는 가본 적도 없는 이국의 풍경이나 본 적도 없는 동물들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루소가 첫 작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루소는 뭐라고 했을지 루소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루소의 답변을 적어봅시다.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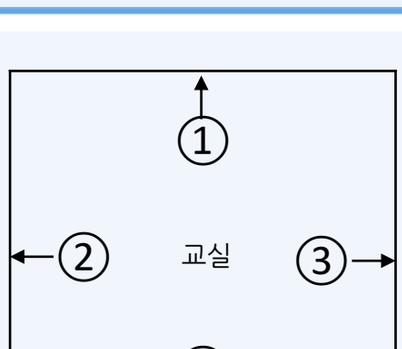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6장. 미켈란젤로의 파란색 방 - 다양한 시점으로 보는 세상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보기

<모둠 활동>

이집트 벽화 <네바문의 정원>을 참고하여 각자 위치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달리하여 교실을 그려봅시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그린 친구들의 그림을 서로 연결해 보고,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내 시점에서 보이는 것

다른 시점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

그림을 모두 연결 하였을 때의 느낌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6장. 미켈란젤로의 파란색 방 - 다양한 시점으로 보는 세상

시점 이동 연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시점은 무척 중요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일관성 있고 생각이 정리된 것처럼 보여. 하지만 다양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래 지낼수록 다른 사람들과 자꾸 갈등을 겪게 될 거야.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다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처음에는 주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되지. "(본문99~100쪽)

꽃 아주머니는 다양한 시점에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시점이 되어 이야기해 봅시다.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 엄마의 시점으로 이동!

친구와 싸우고 화해하지 못 했을 때, 친구의 시점으로 이동!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7장. 샤갈의 남색방 – 감정을 표현하는 세상

마음에 이름을 붙여요

"그림은 사람들의 정서, 그러니까 마음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역할도 한단다. 마음의 분위기는 시시때때로 바뀌지. 기뻤다가도 슬퍼지고 화가 났다가도 어느새 평안해지기도 하고…. 일일이 이름 붙일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기분이 우리 마음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송이도 그렇지?" (본문 112쪽)

꽃 아주머니는 송이에게 수시로 변하는 다양한 기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루를 보내면서 나타나는 기분을 떠올리며 그때의 마음에 이름을 붙이고 이유를 이야기 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 _____

등굣길에 친구를 만났을 때 : _____

급식 반찬이 맛이 없을 때 : _____

_____ : _____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7장. 샤갈의 남색방 – 감정을 표현하는 세상

감정을 담은 제목

"샤갈의 고향은 러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이야. 그곳에서는 결혼식 같은 경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 젊은 시절, 샤갈은 프랑스에 그림을 그리러 왔지만, 마음 속에는 늘 떠나온 고향 생각이 가득했대."

"행복하고 아름 다운 결혼식 장면을 그렸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슬픈 느낌이 자꾸 들어요."

(본문110쪽)

고향을 그리워하던 샤갈은 감정을 담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샤갈의 <화가와 신부>와 <나와 마을>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을 써보고 그림의 제목을 감정을 표현하는 제목으로 바꿔 봅시다.

화가와 신부

느낌 :

제목 :

나와 마을

느낌 :

제목 :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8장. 마그리트의 보라색 방 - 상대적 크기로 보는 세상

상대적 크기

상대적 크기는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을 떠올리며 아래의 예시처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크 기	야구공은 농구공보다 작다 /	야구공은 탁구공보다 크다
길 이	길다 /	짧다
넓 이	넓다 /	좁다
굵 기	굵다 /	가늘다
두 께	두껍다 /	얇다
무 게	무겁다 /	가볍다
양	많다 /	적다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8장. 마그리트의 보라색 방 - 상대적 크기로 보는 세상

확대해서 바라보기

준비물 : 돋보기

돋보기나 현미경은 사물의 작은 부분을 크게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통해 사물을 확대해 보고 자세하게 그려 봅시다.

관찰 대상 :

특 징 :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9장. 렘브란트의 검은색 방 – 빛과 어둠으로 보는 세상

자신의 모습을 관찰해요

준비물 : 거울

자화상은 자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말해요.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꽃 아주머니는 검은 방에 있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말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보여요. 우리도 렘브란트가 되어 거울 속 내 얼굴을 관찰하고 글로 표현해 봅시다.

생김새

표 정

느 낌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9장. 렘브란트의 검은색 방 – 빛과 어둠으로 보는 세상

빛의 화가 렘브란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어두운 곳에 조명을 비춘 것처럼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이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어둠 속에서 무서웠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그때의 기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언제 ?

어디서 ?

누구와 함께 ?

왜 ?

그 때의 기분은 ?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우리가 만난 화가들

책 속에 등장한 화가들을 찾아보세요. (10명)

칸	딘	스	키	스	케	치	북	자	마
레	지	우	개	렘	브	란	트	화	티
오	초	상	화	청	색	시	대	상	스
나	몬	드	리	안	명	암	캔	버	스
르	미	술	김	종	미	에	디	슨	뒤
도	환	루	홍	이	무	켈	검	정	러
피	상	소	도	지	붓	크	란	색	화
카	시	점	개	샤	갈	레	빨	젤	가
소	입	체	파	조	명	파	강	빛	로
연	필	마	그	리	트	스	조	각	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내가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인가요? 왜 좋아하게 되었나요?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

꽃 아주머니와 비밀의 방

우리가 만난 화가들

책 속에 등장한 화가들을 찾아보세요. (10명)

칸	딘	스	키	스	케	치	북	자	마
레	지	우	개	렘	브	란	트	화	티
오	초	상	화	청	색	시	대	상	스
나	몬	드	리	안	명	암	캔	버	스
르	미	술	김	종	미	에	디	슨	뒤
도	환	루	홍	이	무	켈	검	정	러
피	상	소	도	지	붓	크	란	색	화
카	시	점	개	샤	갈	레	빨	젤	가
소	입	체	파	조	명	파	강	빛	로
연	필	마	그	리	트	스	조	각	가

(마티스, 뒤러, 몬드리안, 칸디스키, 피카소, 루소, 미켈란젤로, 샤갈, 마그리트, 렘브란트)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내가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인가요? 왜 좋아하게 되었나요?

이 독후 활동지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두북, 시금치출판사